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바람직한 나그네 인생길

한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손님)라 하는데 나그네는 잠시 머물렀던 곳에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잠시 머물렀다가 떠난다. 종교계에서는 인간을 이승에서 잠시 머물렀다 영겁(永劫)의 저승으로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라 한다.

길은 태초에 없었으며 사람이나 짐승이 계속 다니면 길이 생겼다. 처음 간 사람은 길을 만들고 있음으로 다음에 올 사람을 생각해서 잘 만들어야 하며, 길을 만드는 사람을 개척자라 한다. 인생이란 생명체인 인간(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으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가에서 나그네 인생길이라 한다.

인생이 어떤 길을 만들며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서산대사(1520-1604)는 후세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시(禪詩)를 남겼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발걸음을 어지럽히며 가지 말라/ 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취는/ 遂作' 後人程 반드시 뒷사람들의 길이 되리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인생 길을 누군가는 답습할 수 있음으로 바른 인생길을 선택해서 개척하며 가야 한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사람마다 선택해서 낯선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은 처음 가는 길로써 한 번밖에 갈 수 없으며,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좋은 길동무를 만나기도 하고, 고난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바른길을 가려고 훌륭한 선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한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므로 천차만별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길인가?'라는 정답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후세 사람들이 살지만,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본받거나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한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 여정(旅程)에서 무엇 보다 소중한 것은 인연(因緣)이다. 부모 형제와 만남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직장 연, 종교 연 등 수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한 삶이 되기도 한다. 그중에서 배우자와 친구는 자기가 선택한 만남이지만, 인생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상을 사노라면 수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중에는 디딤돌이나 징검다리 되는 사람이 있고, 걸림돌이나 누를 돌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길이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이기엔 길동무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 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

인생이 가는 길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갈지라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한다. 가치 있는 삶이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베풀며 도와주는 일이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삶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된다. 그 기억은 생전에 그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는가, 아니면 악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간성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선행은 사람들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일이다.

나그네 인생길은 종착역에 도착하면 이승을 떠나야 한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가진 것을 잠시 가지고 있다가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인생을 선행을 베풀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종교계에서는 말하는 이승에서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머물렀던 이승에 많은 것을 베풀고 새로운 인생길을 개척하며 떠나는 보람 있는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다 갔으면 한다.

기고

비행금지구역 드론 출현, 테러 위기감만 증폭시켜

최근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드론 동호회가 늘면서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 항공 촬영, 농약살포, 환경감시 등 실생활 곳곳에서 그야말로 드론이 대세다.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아무곳에서나 제한없이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형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항공법에 따라 드론 비행을 일정부분 규제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행금지구역이란 드론 운용 전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을 일컫는데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한 예이다.

전국 시군 지역별로 시군 경계가 잇닿아 하늘에도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항공사전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비행금지구역 드론 운용, 야간비행, 공항 이착륙지역 미승인 비행 등 항공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185건으로 이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상태에 드론을 운용하다 발견된 경우는 7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적발에 앞서 드론을 띄울 장소가 법에 저촉되는 장소는 아닌지

확인하는 등 특히 주의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가 보안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비행에 어느정도 규제를 가하고 있는것이라 이해하면 될듯하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불법 비행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 역시 상당한 금액을 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낼수도 있다.

그럼 어디에서 드론비행이 가능할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인만큼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할 경우 동호회 회원 등 마니아 사이에선 익히 알려져 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 등 공동개발한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비행 금지구역과 관제권을 손쉽게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비행전 사전 확인해 보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산업과 경제 측면에서 드론산업이 핵심 기술로 강세를 보일것으로 예견되지만 얼마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소형 드론의 폭격 소식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위기감도 감돌고 있을뿐 아니라 불법 비행으로 인한 국민안전과 국가안전시설 테러와 기밀유출 위험 등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고 드론 기술의 명과 암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봄철 산불대비 안전수칙

날이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운동도 하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다.

봄철 산행 시에는 건조한 날씨와 다양한 이유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조심해야 한다.

산불원인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담배꽂이를 버린다가 나, 논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서 발생한 불이 큰 불로 퍼져간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으로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몇가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1. 산행 시 담배 및ライター를 소지하지 않기

-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산에 오를 때만큼 흡연 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절대 금연을 해주시길 바란다.

2. 산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하지 않기

- 산행 시 산악위치지표지판을 틀들이 기억하여 사고 시 위치번호를 알려줘서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

4. 작은 산불 진화 시 솔가지나 외투를 이용하기

- 작은 불일 경우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조기 진압이 중요하다.

5. 산불과 맞닥뜨렸을 때 저지대나 도로, 불에 타갈 것이 적은 바위로 대피하기

- 짐작하게 불이 약한 곳이나 바람이 부는 방향을 파악하여 바람을 등진 상태로 대피하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바위, 도로 등으로 대피하는게 안전하다.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산불과 인명피해라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봄철 산행 시 사소한 행동에도 평소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재욱/담양119안전센터소방위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